



스위스재보험 2008년 2분기 순익 6억 스위스프랑 기록
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모두 우수한 실적
 주당 순이익 1.70 스위스프랑
 연간 자기자본 이익률 8.5% 기록

Contact:

Media Relations, Zurich
 Telephone +41 43 285 7171

Corporate Communications, London
 Telephone +44 20 7933 3445

Corporate Communications, Asia
 Telephone +852 2582 3660

Corporate Communications, New York
 Telephone +1 212 317 5663

Investor Relations, Zurich
 Telephone +41 43 285 4444

Swiss Reinsurance Company Ltd
 Mythenquai 50/60
 P.O. Box
 CH-8022 Zurich

Telephone +41 43 285 2121
 Fax +41 43 285 2999
www.swissre.com

2008년 8월 5일, 취리히 - 스위스재보험은 2008년 2분기,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, 순익 6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.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, 주당 순이익은 1.70 스위스프랑, 연간 자기자본 이익률은 8.5%를 기록했다. 스위스재보험은 AA 등급에 요구되는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견실한 자본력을 유지하고 있다.

스위스재보험의 최고 경영자 자크 애그랭(Jacques Aigrain)은 “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어려운 시장 환경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자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.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, 스위스재보험의 자본은 매우 안정적이며 투자 포트폴리오도 여전히 견실하다.” 고 말했다.

스위스재보험은 2008년 2분기 순익 6억 스위스프랑 (주당 순익 1.7 스위스프랑)을 기록했다. 연간자기자본이익률은 상반기에 8.4%, 2분기에 8.5%를 기록했다. 런오프(run-off) 신용 디폴트 스왑(CDS)의 미실현 시가 평가 손실은 2008년 2분기 3억 6천 2백만 스위스프랑이다. 신용 디폴트 스왑 거래 부문의 경우 런오프(run-off)이긴 하나 기저 증권(underlying securities)이 시장가 변동에 꾸준히 영향을 받게 된다. 2008년 7월 한 달간 신용 디폴트 스왑 거래의 시가 평가 손실은 1억 6천 3백만 스위스프랑으로 추정된다.

2분기 주주 자본은 17억 스위스프랑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평가의 영향으로 8% 감소한 256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. 이는 금리 변동과 13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배당금 지급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. 2008년 7월 말, 스위스재보험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의 목표치인 77억 5천만 스위스프랑의 49%를 예정보다 앞서 달성했으며 이는 스위스재보험의 자본 기반이 견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. 주당 순자산은 2008년 3월 말 83.26 스위스프랑을, 6월말 기준 77.65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.

스위스재보험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영업 실적을 달성했다. 손해보험은 92.3%의 합산 비율을 보이며 또 한번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스위스재보험의 효과적인 주기 관리(cycle

management)를 입증했다.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시장 상황에서도 스위스재보험의 엄격한 보험 심사와 신중한 위험 선별이 2 분기 투자 수익이 급격히 낮아졌음에도 손해보험 부문의 영업 이익을 8 억 스위스프랑에 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생명보험 부문의 영업 이익은 사망률 및 질병률이 눈에 띄게 개선됨에 따라 2007 년 2 분기 대비 1% 증가 6 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. 반면 Admin Re® 부문은 2008 년 1 분기에 비해, 비교적 낮은 투자 수익의 영향을 받았다.

금융 부문은 영업 이익 13 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으며(신용 디폴트 스왑 런오프 제외) 이는 5.2%의 견실한 투자 수익률을 반영한다. 연간 투자 수익률 (신용 디폴트 스왑 런오프 제외)은 2 분기 동안 3.0%를 기록했다. 투자 수익률 감소는 주로 스위스재보험 그룹의 헤징 프로그램 (hedging programme)의 영향이다. 이들 헤징 프로그램은 포트폴리오를 감액상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스위스재보험의 회계상 투자 수익률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총 감액상각이 1 억 7 천 5 백만 스위스프랑으로 미미한 정도이며 상장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아 양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.

자크 애그랭 최고 경영자는 “어려운 시장 환경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. 엄격한 보험심사, 신흥 시장 진출 및 새로운 상품 소개를 중심으로 스위스 재보험은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집행 능력 및 자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.” 라고 말했다.

예를 들어, 2008 년 8 월 5 일, 스위스재보험은 Barclays 생명 보험사를 7 억 5 천 3 백만 파운드에 인수 한 바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연금 상품 뿐 아니라 약 76 만 생명 보험 증권을 인수할 것이며 이는 투자 자산으로 약 68 억 파운드에 이른다. 이번 인수로 인해, 이번 분기 스위스재보험의 목표치인 14%를 초과하는 자기자본이익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는 스위스재보험이 과거 발표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, 77 억 5 천 스위스프랑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예정되로 2010 년 4 월까지 완료될 것이다.

스위스재보험은 생명 및 손해보험 부문 런오프 솔루션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과 북미의 Admin Re® 사업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할 것이다. 스위스재보험은 최근 베가 캐피탈 프로그램 (Vega capital programme)을 통해 미화 1 억 5 천만 달러에 달하는 다중 위험 자연재해 보호 프로그램을 증권화 함으로써 보험 연계 증권(ILS) 상품의 혁신에 있어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다.

이번 분기 스위스재보험은 주당 순익 성장률 10%와 자기 자본 이익율 14%의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다.

편집자 주

스위스재보험

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1863 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. 손해보험 상품,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(Standard & Poor's)로부터 'AA-' 를, 무디스(Moody's)로부터 'Aa2' 를, 에이엠 베스트(A.M. Best)로부터 'A+' 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.

스위스재보험은 1913 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900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. 2006 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 년을 맞이했다.